

글로벌 시대

통합단체의 위상과 역할



김성수 고신대 총장, 기독교학문연구소 소장

한국 사회에서 기독지성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동역회)가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선포식을 가지게 된 것은 기독교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사역이 주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한다면,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 궁극적으로 기독교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연구와 교육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기에 사실 두 단체의 활동이 많은 점에서 중첩되어 있었다. 특히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두 단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비전이 많은 점에서 동질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차세대 기독학자들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 단체가 통합을 결의하게 됨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기독교적 연구와 교육의 역량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기독교적 연구와 교육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소명이며 과업이다.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연구와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고등교육 기관을 통해 복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정교화하고, 이를 현실 사회 속에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단순히 '예수-천당' 또는 '영혼 구원'이라는 도식에서 총체적 복음에 대한 순종적 반응이라는 도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을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기학연' 과 '동역회' 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며,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통해서 교육과 학문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두 단체는 한국교회의 건설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단체가 기독교성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한 관점과 이론적 틀은 주로 서구의 사상적 전통에 의존하거나 서구 기독교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지면을 통해서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에베르트와 같은 화란의 개혁주의 사상가들과, 앨버트 윌터스, 브라이언 월쉬, 리차드 미들튼, 아더 홈스, 니콜라스 윌터스톨프, 레슬리 뉴비긴, 리차드 에들린 등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개혁주의 학자들의 강의와 글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의 사상이나 관점은 나름대로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소위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integration) 또는 통전적(integral)인 접근을 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그리고 기독교학문 분야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통찰과 연구 역량도 상당한 정도로 성숙하였다. '기학연'과 '동역회'에서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서구의 학자들

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세계관과 개별학문에의 함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관점에서 학문의 세속화 문제를 그 뿌리에서부터 검토하는 개혁주의 접근에 익숙해 있으며, 학문에 대한 인지적이며 지성적인 접근보다는 전인적이며 윤리적인 접근, 그리고 삶을 통한 사고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재세례파 또는 메노나이트적 접근에도 익숙해 있다. 한국의 기독교학자들은 기독교적 지성이 단순히 메마른 주지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청교도적 윤리와 감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공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진정한 개혁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비전을 추구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통합단체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이제 '기학연'과 '동역회' 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기만 하면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을 향해 엄

두 단체의 통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바지하되, 이를 우리만 누리는 메마른 '지적 놀음' 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보다 풍요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일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청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교회는 복음에 빛진 교회다. 기독교교육과 학문 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빛을 갠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 역량을 결집하고 이웃을 섬기고자하는 선한 동기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지성은 물론 감성과 의지의 혁신적 변혁과 창조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총체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채색된 교육과 학문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러한 기독교적 학문의 정체성이 교육과 학문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단순히 두 단체의 비전과 활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통합은 분명 아닐 것이다. 두 단체의 통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바지하되, 이를 우리만

누리는 메마른 '지적 놀음' 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보다 풍요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일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 중심으로도 기독교교육과 학문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하며, 해외 지부의 설립을 통해서 이 운동을 글로벌화시켜 나가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통합단체는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향해서도 탁월성을 겸비한 섬김의 지도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나가야 한다.

